

Since Oct. 10, 2004
해외 한인 장로회

Church of the Lord

하나님의 사랑교회

Jun. 28, 2026

(통권 1112호)



오늘의 말씀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

[다니엘 10:10~14]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어뜨려서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11)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어져
일어서니 (12)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3)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주므로 (14)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담임목사 정석진

David Seokjin Chung / Senior Pastor

Cell 551.999.5358

pastor.ds.chung@gmail.com

5 Old Dock Rd.

Alpine, NJ 07620

Tel. 845.398.0691, 201.767.1004

Fax. 845.398.1365

www.churchofthelord.org

서론 ~ 내가 기도할 때, 실제로 하늘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 우리는 기도가 영적 전쟁의 마지막
무기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기도하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실제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본문 강해

다니엘의 기도의 첫날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고, 또한 그 첫날에
응답되었습니다.

[단 10:12]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첫날부터"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21일
후에 응답된 것이 아닙니다. 첫날 응답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일과 그 응답이 우리에게 도착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영적 저항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10:13]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주므로
여기에 나오는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왕국과 왕의 배후에 존재하는 영적 세력입니다. 이
영적 세계의 체계에 대해 바울이 말합니다.

[엡 6: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영적인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세력들입니다.

다니엘 10장은 에베소서 6장의 실제 사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세계에 엄청난 움직임은 초래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 하늘의 영적 세계에 엄청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처럼 다니엘도 자신의 기도가 영적 세계에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에게 명하셔서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영적 세계에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 메시지를 가져오는 천사를 가로막고 그를 억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메시지를 가져오는 천사가 억류되어 있었던 동안에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바사 왕국의 왕들”이 누군가에 대해선 과도한 추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사 왕국의 군주”와 “가장 높은 군주들 중

하나인 미가엘”,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늘의 영들의 Rank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사국 왕들도

그들 중의 하나입니다. 사탄의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일컫는 말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이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서는 엄청난 움직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를 보내셨고,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려고 그 천사를 억류하고 있었으며, 사탄의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천사를 억류하는데 함께 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군장 미가엘 천사를 보내시매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가 풀려나서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랬듯이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는 하면서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가 뭐 그리 대단한 효과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천사들이 압니다. 심지어 사탄도 압니다. 정작 기도하는 우리 자신만 모를 때가 많지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앉으면 벌써 하늘에는 비상이 걸린다는 것ですよ. 비록 유창하고 대단한 기도가 못된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천사들끼리 말합니다.

“Hey, Gabriel, let’s get ready man. He or she begins to pray. God will command us to do something, because God’s child begins to pray. Hey, Michael, let’s get ready. You should intervene this, man.”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상상일 뿐이지만, 영적 세계의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당연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왜 21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의도적으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어떻든 응답은 첫 날에 떠났는데, 21일만에 다니엘에게 도착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첫날에도 미가엘을 보내셔서 바로 메시지를 가져오는 천사를 풀어주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1일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미가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일째에도 기도했고, 10일째에도 기도했고, 20일째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1일째에 이르렀을 때 응답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이 20일째 기도를 포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응답은 21일째 오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 우리 성경 속의 끈질긴 기도의 표본들을 찾아봅시다.

제일 먼저 압복강에서 야곱의 씨름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창 32). 그는 환도뼈가 위골되는 상황에서도 천사를 놓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미스바의 돌무더기를 생각할 때 뒤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은 형의 존재로 더 두려웠습니다. 이 상황에 야곱에겐 기도밖에 길이 없었습니다.

[창 32:26]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계 하지 아니하겠나이다[창 32]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나오는 비유 속의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스토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눅 18:1]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당연히 3년 6개월의 가뭄 끝에 비를 주시도록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 또한 좋은 예입니다. 그는 일곱 번을 기도하며 계속 징후를 살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만한 구름 한 장에도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느꼈습니다.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본문 속의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것은 다니엘의 기도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를 위한 중보기도였다는 점입니다.

중보기도는 “가족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등으로 타인과 하나님의 사역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삶을 공격하는 사단을 가로막고 서서 대신 싸워주는 의미를 갖습니다. 굉장한 영적 에너지와 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참으로 위대한 중보기도의 케이스들을 봅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처럼 아름다웠던 모세의 중보기도였습니다.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진노가 선언될 때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더라도 자기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 했습니다(출 32).

또한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행 12:5]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리고,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천사가 찾아와 베드로를 데리고 나옵니다. 멀쩡히 눈

뜨고 지키던 간수들 앞을 지나가지만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베드로의 실체를 믿지 못합니다. 기도는 했지만, 실제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 능력을 쏟아 내시도록 교회는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영적 세계의 전쟁도, 미가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 하나만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은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갈 6:9]이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 적용을 위한 질문들입니다.

~ 나는 응답이 늦어질 때 포기하는가?

~ 나는 중보기도의 사람인가?

~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가?

~ 나는 끝까지 기도하는가?

오늘의 기도 포인트입니다.

A.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B. 중보기도의 사람 되게 하소서

C.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D.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소서